

남해안 해수면 상승…갯벌이 줄어간다

수온 상승·극지방 빙하 해빙…28년간 매년 2.48mm씩 올라
거문도 4.43mm·완도 1.84mm ↑…항만 높이·해일 대책 시급

여수, 완도지역 등 남해안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89년 이래 1년 마다 평균 2.48mm씩 육지가 물에 잠기고 있다. 또 남해안은 동·서해안에 비해 최근 10년간 수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을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보고 남해안 갯벌 면적 축소, 해일 피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28년간(1989~2016) 남해안은 매년 평균 2.48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매년 0.13mm씩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목포, 흑산도, 완도, 여수 등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8개 조위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다.

완도 인근 바다는 매년 1.84mm씩, 여수 바다는 매년 1.06mm 상승하고 있다. 여수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자리한 거문도 인근 바다는 매년 평균 4.43mm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난 28년간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매년 2.96mm으로, 매년 0.1mm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속화되고 있다. 해수면 평균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매년 4.55mm로 가장 높았으며 동해안 3.78mm, 남해안 2.48mm, 서해안 1.47mm 순이다. 상승 가속화 정도 역시 동해·남해·서해안 순이었으며 각각 0.17mm, 0.13mm, 0.11mm씩 매년 더해지고 있다. 제주 부근에서는

상승 속도가 -0.1mm씩 점차 느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28년간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IPCC(UN 기후변화대응협의체)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전 세계 평균값(2.0mm)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남해안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지난해 말 기준 167.5cm으로,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높이(165.3cm)보다 2.2cm 높았다. 서해안은 394.6cm(10년간 평균 393.8cm), 동해안은 39.4cm(37.0cm)이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이 산업화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수온이 상승, 바닷물 부피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갯벌 감소와 태풍·해일 등에 의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보여 항만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한반도 연안의 평균 수온은 23.52도로, 남해안 24.33도, 서해안

23.78도 순이었다.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보다 각각 0.79도, 0.27도, 0.61도 높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9.9ppm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2.3ppm씩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 ‘2016 해양수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갯벌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 면적은 1987년 1179.1㎢에서 2013년 1044.4㎢으로 11.4% 감소했다.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 연구실장은 “해수면 상승 원인은 수온 상승에 따른 부피 증가가 가장 크고, 극지방·고지대 빙하가 녹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높이를 조정해야 하며 해일이 닥쳤을 때 피해가 더 커지는 만큼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진짜사나이 되어 오렴” 올해 첫 임영행사가 2일 광주시 북구 육군 제31보병사단 총장관에서 열렸다. 가족들이 입대 장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보건소 간호사 2명중 1명은 비정규직

17개 시·도 중 5위…전국 평균보다 9.3%P 높아

광주지역 보건소·보건지소 근무 간호사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2일 대한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의 ‘2017 보건간호인력 통계’에 따르면 광주

공공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간호사는 222명으로 이중 105명(47.3%)이 비정규직이다. 이는 전국 평균 38% 보다 9.3%포인트 높은 수치로, 제주(62.0%), 부산(54.9%), 인천(53.96%), 서울(48.9%)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전남 공공보건기관 간

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26.4%(655명 중 173명)로, 경북과 함께 공동 12위였다. 간호사(정규·비정규직 포함) 1인당 담당 인구수로 봤을 때 광주는 6670.3명으로, 대구(9447명), 대전(8604.4명), 부산(7431.4명), 경기(7408.8명)에 이어 5번째였다. 전국 평균은 5409명이었다. 공공보건기관 간호사는 주민의 건강증

진·보건교육·예방접종·결핵 관리·모자 보건·정신질환 관리·방문 건강관리·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전국 평균 40%에 육박하는 인력이 비정규직이어서 업무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적 관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역할을 강화하려면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3

달출 19:01
달짐 08:25

쌀쌀해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대.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4	보성	맑음	-4/4
목포	맑음	-1/3	순천	맑음	-2/5
여수	맑음	-1/5	영광	맑음	-3/1
나주	맑음	-4/4	진도	맑음	-2/4
완도	구름맑음	0/5	전주	맑음	-4/3
구례	맑음	-4/4	군산	맑음	-4/2
강진	맑음	-3/4	남원	맑음	-5/3
해남	맑음	-4/4	흑산도	맑음	1/4
장성	맑음	-4/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2.0
남부	면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5~2.5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남해	면바다(동) 북서~북 1.0~1.5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55	02:32
	20:36	15:21
여수	03:31	10:08
	16:10	22:16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	☁*	☀	☁	☁*	☀	☀
-3/3	-1/4	-1/6	-1/7	0/6	-2/4	-3/4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편리함 보다 자연보호

북구, 운암어린이공원 훼손 방지 45억 들여 지하주차장 건립

지하주차장이 조성된 운암어린이공원 전경. <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가 도심 공원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공원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수심억 예산을 들여가며 지하에 주차공간을 마련한 것은 광주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다. 그동안 운암어린이공원 주변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 지역으로 꼽혔다. 운암시장과 주변 상가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도심공동화도 심화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던 지역이다.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45억원(국비 15억원·시비 7억5000만원·구비 22억5000만원)을 들여 운암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평(3.3㎡)당 1000만원 달하는 높은 부지 매입 비용으로 난항을 겪었다. 같은해 10월 열린 민·관담화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지는 아이디어를 냈다. 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하를 활용하자는 의견이었다. 현재 준공된 지하 주차장은 건축면적 24%㎡ 규모로, 최대 56대(확장형 46면·장애인 2면·임산부 2면·일반 2면·소형 4면)를 수용할 수 있다. 주차장 지상에 는 나무, 각종 놀이시설 등 어린이놀이 타, 운동시설 등을 재설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주차장은 오는 2월 중 민간 위탁자가 선정되는대로 곧바로 운영될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30분에 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김용희기자 kimyh@